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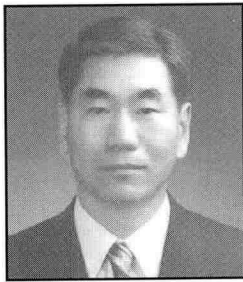
회원사가족이 되었습니다

본 지면은 한국광학기기협회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를 소개하는 면이다.
지난 달에는 (주)에이피엔텍과 올림푸스한국(주)가 본 협회의 새로운 가족이 됐다.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들 회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주)에이피엔텍

3차원 나노 현미경의 상용화 성공 토대로 기술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



에이피엔텍의 최승길 대표이사

(주)에이피엔텍(대표·최승길)은 2002년 창사이래 LED 보행자 신호등, 디지털 도어 록, 통신 관로 탐색용 카메라 개발 등 주로 연구 개발 용역 사업에 집중해 왔다. 2004년부터는 국책 연구개발 사업 과제로 “3차원 나노 현미경”과 “LCD 타입 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 장치 기술”의 개발에 집중하여 이 두 분야의 원천 기술 개발에서 시제품 제작까지 완료된 상태로 현재 사업화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에이피엔텍이 개발한 3차원 나노 현미경은 ‘디지털 홀로그래프’를 광학 현미경에 접목시킨 것이 특징”이라며, “기존의 광학 현미경이나, 전자 현미경, 원자 현미경 기술과는 개념이 다른 현미경이다”고 말했다.

회사의 3차원 나노 현미경은 ‘디지털 홀로그래프’를 광학 현미경에 접목시킨 것이 특징”이라며, “기존의 광학 현미경이나, 전자 현미경, 원자 현미경 기술과는 개념이 다른 현미경이다”고 말했다.

디지털 홀로그래프 현미경은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비파괴 측정(레이저 광원을 이용한 측정) ▷3차원 데이터를 얻기 위해 기존 현미경과 같이 여러 번의 스캔 작업이 불필요 (한번의 순간 촬영으로 3차원 데이터 추출) ▷살아있는 세포의 실시간 동적 활동 및 이동을 촬영 또는 측정할 수 있으며 ▷일반 대기환경하에서 측정(진공, 방진 시설 등이 불필요) ▷시료의 전처리 과정이 불필요 하며 ▷가격이 저렴(공 초점 현미경에 비해 약 1/4 가격) 하다는데 있다.

회사 관계자는 “생명 과학 분야에서는 줄기세포 배양시 세포의 분열과정을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분열된 세포의 숫자파악은 물론, 분화되가는 세포의 모양까지도 3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현미경이기 때문에 향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맞춤형 줄기 세포 배양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현미경은 움직이는 피사체를 순간적으로 한번 촬영하여 3차원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분야에서는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와 LCD/PDP/OLED 등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패널 검사장비에 적용하게 되면 기존 현미경을 사용하여 만든 검사 장비에 비해 검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패널 생산업체들의 생산량도 대폭 증대할 수 있다. 또한 검사장비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복잡한 방진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이피엔텍의 최승길 사장은 “앞으로 기존 현미경이 갖지 못한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Application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면 향후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오르는 줄기 세포 배양 연구 분야의 현미경 시장 장악은 물론, 각종 검사장비가 적용되는 산업분야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에이피엔텍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인 만큼 사업화 작업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어떤 메이저 업체들도 넘볼 수 없도록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락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57번지 현대 아이텔 806호

전화 : (042) 487-9911

팩스 : (042) 483-8163

http://www.apntech.co.kr

e-mail : skchoi3895@hanmail.net

올림푸스한국(주)

설립 2년 만에 디지털 카메라 시장 선도, 대형 병원 내시경 90% 이상 공급



올림푸스한국의 방일석 대표이사

올림푸스한국(주)(대표·방일석)은 세계적인 광학기기 전문기업인 일본 올림푸이미징(주)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디지털 카메라 중심의 영상사업부와 내시경, 혈액분석장치 등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사업부로 이루어져 있다.

올림푸스한국은 2000년 설립 이래 3%에 불과했던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2년 만에 업계 수위로 끌어올리는 등 국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했다. 또한 2004년 7월 1일부터 의료사업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 국내 대형 병원 내시경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학 병원급의 주요 병원에는 90% 이상이 올림푸스 내시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시경을 기반으로 하는 올림푸스한국 의료사업부에서 국내 내시경 시장의 약 85%를 점유하고 있다. 의료사업부는 소화기 내시경(GI), 초음파 내시경(EUS), 수술 처치도구, 수술용 장비(SP), 소독멸균세정기(CDS) 등의 5개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올림푸스는 1950년 세계 최초로 위 관찰용 카메라를 개발한 이래 체내관찰용 파이버스코프, 비디오스코프를 개발하고, 진단과 함께 각종 치료를 위한 처치도구(ET), 치료기구까지 사업 영역을 발전시켜 왔으며, 각종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공헌하고 있다. 내시경 이외에도 의료/건강분야에 광학, 디지털 기술의 강점을 살려 현미경, 혈액분석장치 등의 시스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의료 종합 메이커이다. 그 중에서도 내시경 분야에서는 소화기계를 비롯하여 외과영역 등 폭 넓은 임상 의학을 대상으로 진단/치료 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75%에 달한다.

한편, 올림푸스한국에서는 2002년 자회사 (주)오디엔케이(Olympus Digital Networks Korea)를 설립하여 xD 메모리 카드 공급 사업을 시작했다. 2003년 8월 첫 수출을 시작한 이래 2년 만에 1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전 세계 올림푸스 카메라 xD 메모리카드의 절반을 (주)오디엔케이에서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오디엔케이는 연간 3,000만장의 인화서비스를 하는 국내 대표적인 인화 사이트 미오디오(www.miodio.c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초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색감의 사진을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영

상솔루션 'Realpics'를 개발하고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디지털 영상솔루션 'Realpics'는 금년 5월 제7회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 대상에서 디지털 기술 부문 대상인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올림푸스한국의 방일석 사장은 "올림푸스한국은 광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더욱 진보된 광학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락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6-1(현대해상빌딩 9층)

전화 : (02) 6255-2110

팩스 : (02) 6255-3299

http://www.olympus.co.kr

e-mail : michael@olympus.co.kr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광학세계'의 회원사동정 및 광학신상품 란은 회원사들의 홍보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인사 및 행사, 회사 업적 소개, 변경 사항, 신상품 출시 등 홍보를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연락처 : 광학세계 편집부
- 전 화 : (02)3481-8931
- 팩 스 : (02)3481-8669
- 이메일 : pjy@koia.or.kr